



주 제:	“하느님 사랑”	“삼위 일체 대축일”	2008년 5월 18일
복음 묵상:	[요한 3,16-18]	[탈출 34,4 ~6. 8-9]	[2 코린 13,11-13]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심과 서로 높고 낮음없이 하나되심을 묵상하고, 하나이신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머리로 하는 인생에 대한 싸움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물어보고, 제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정작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삶은 결코 주입식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체험식 교육 즉,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힘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몫을 빼앗지 맙시다.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걱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또 내가 그 이끄심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주도권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수원 강은식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축하합니다.

축입단; 최 정신데레사 (소프라노), 임 동환 안드레아 (베이스), 이 상환 베드로 (테너) 세 형제 자매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쾌히 응답하시어 입단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 듬뿍 받으십시오.

축견진; 최 일해 (다니엘), 임 동환 (안드레아) 두형제님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전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꽃을 성가대 모든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어 함께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LA 로 이사하신 윤 안도 요셉 형제님께서 그곳에 집을 구입하여 완전 정착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성토마스 성당의 두분이 나란히 성가대에 입단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산호세의 성가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 오셨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으나 기도중에 한 가족임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 안 영희 세실리아 자매께서도 5월 중순경에 그동안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 (테너)과 함께 귀국하실 것이라는 기쁜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건강히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요청

- 지난 4 월말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이 아들과 함께 귀가중 교통사고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도중에 꼭 기억하시어 빨리 건강찾으시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청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지킵시다.

-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부터 9:15 부터 9:30 까지 15 분간 악보로 발성 연습을 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성가대 소식난은 꼭 읽어 보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불편과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분 명상

" 하느님께 청(請)하는 기도, "

너무나 다정한 하느님인 내가 너에게...
(이런 기도라면 들어주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특별한 재간이나 지혜를 따낼 필요는 없단다.
다만 나를 힘껏, 정성껏 사랑하려고만 하여라.

네가 제일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이야기 하여라.
네가 특별히 위하여 기도해 주고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의 이름과 또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 다오.

나는 마음이 넓고 자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좋게 해 주기를 부탁하여라.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에 빠진 자,
너 보다 더 불쌍한 자들에 관하여 내게 이야기 해 다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맺었던 우정이나 사랑을 잃었거든 그것도 내게 말해 다오.

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빌 것은 없느냐?
네가 원한다면 그 모든 소원의 조목을 자세히 나에게 읽어 다오.

네 육신이나 정신 혹은 영혼의 축복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건강과 성공과 기억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네게 줄 수 있고, 특히 네 영혼을 보다 더 거룩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주겠다.